#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송 요 셉

## 제 15 강의 : 헛된 세상을 비웃고 조롱하며 화를 내시는 심판주 그리스도

**기도 ◀**

아버지, 기름부음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이루어진 말씀"**과 **"이루어질 말씀"**을 다시 한 번 깨닫고 확인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소망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히브리서 11 장의 믿음의 성도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몸으로 행한 대로 칭찬 받으며 열 고을 다섯 고을을 통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인사와 소개 ◀**

오늘은 시편 2 편을 공부합니다. 주님은 부활 하셔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들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000 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시편 2 편은 한 절 한 절 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일어날 **"그 일들"**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질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말씀 15: 시편 2:1~12

1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2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3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5 **그 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6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7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8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9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히 부수리로다 하셨도다** 10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11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12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멸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날을 기다리라 ◀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첫째 중의 첫째는,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하신 1 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방"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이고,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에게 "왜 사람들이 똑같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해봤자 소용도 없는 일을 왜 하는가?"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구약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신약에 분명히 기록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푸는 열쇠"인 것입니다. 인류가 행한 **"헛된 일 중의 으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절 말씀이 2000 년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3000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1000 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다 믿는 사람은 → 복된 사람이지요. 노아는 **'비가 올 것'**을 120 년 동안 믿었고,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실 것'**을 수 십 년간 믿었습니다. **『그와 달리, 순간적인 감정으로 잠깐 들썩거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 절대로 양보와 타협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죽여봐야, 그건 → 몸만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몸만 죽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 원수들의 "헛된 일"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일"은 무엇인가? ◀

시편 2 편 1 절의 **"헛된 일"**을 원수들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과연, 그들이 그 일을 행하였다고 사도행전 4 장은 말씀합니다.

23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한 바를 모두 이야기하니 24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같이 하나님께 음성을 높여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이다 25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26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또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라고 하셨나이다 27 **『"과연" 주께서 기름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28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29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30 주의 손을 펴시어 병을 낫게 하시며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더라

**"십자가 사건"** 이후, 잡혔던 사도들이 풀려나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종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하고 시편 2 편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것"**도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자 지진이 났지요. 땅이 진동할 만큼 엄청났던 그 말씀은 바로 →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이 → 바로 헛된 일을 꾀하는 것』** 입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왕이 나셨도다!" 했지요. 그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이방 로마와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죽이면 이 땅을 차지할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게 헛된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도와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간 백성들과 이방인은 주님의 부활도 도와준 것입니다. 마귀가 행한 **"헛된 그 일"**을 통해 →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 일을 못하게 교회를 방해하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는 것이 마귀에게는 좋을 것 같지만, 마귀는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모르지요. 오래 전부터, 그 일이 일어나면 →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헛된 일만 하는 바보 병신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을 때 환호했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셨을

때 깩 소리를 내고 심장마비 걸렸을 겁니다. 그게 마귀 모습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게 **"헛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헛된 일"**이 되었습니까?



**마귀의 자충수는 웃음거리요, 조롱거리였다 ◀**

마귀는 유대인을 통해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게 했지만,『**결박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 오히려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마귀의 운명은『**주님이 다시 오시면 → 결박을 당해서 끝없이 깊은 무저갱 속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 하고 떨어지는 거지요.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멍에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영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죽으셔야 부활하실 때 → 사망권세가 없어지고 → 예수님이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사망은 사망으로만 승부해야지요. 마귀를 이기려면 → 죄를 없애고 → 죽음에서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꼼짝 못합니다.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지요. 죽음을 최후의 무기로 삼는 마귀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의 그 권세는 물거품이 아닙니까? 죽음의 공포가 소용 없는 겁니다. 웃기는 얘기지요. 누구나 다 죽는 사탄의 술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지요.

**사탄만 웃음거리인가? 그를 따라가는 "또 다른 조롱거리인 '나'는 아닌가?" 자문하라 ◀**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 그렇게 엄청난 것"** 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이름의 권세"는 → "예수를 '믿으면서' 그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 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써먹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웃으실 것이요" 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말로,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그래, "헛된 짓" 많이 해봐라. 그러나, 나는 내 뜻을 이룰 것이다!**』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웃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

왜 웃으셨을까요? 왜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셨습니까? 옛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그것을 →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주여,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지요.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휴거 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데리고 오시겠다'**는 말 한 마디에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그들과 같이 이 땅을 통치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옛날 잘못된 '휴거파'들 때문에 지금은 '휴거'의 '휴'자도 못 꺼냅니다. '휴거'는 '갑자기 데려간다'는 뜻이지만, 그런 말 자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뜻에 맞게 한자어로 바꿔 쓰는 거지요. 사탄을 조롱하신 이면에는, **"그 사탄을 짓밟고 사탄에게 빼앗긴 이 땅을 다시 찾아 왕권을 회복해서 같이 내려올 휴거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겠다"**는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계획이 '잠시 끊긴 것'을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그 영원한 회복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 영원함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같이 사무엘하 7 장을 보겠습니다.

8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느니라 9 **나는**

**네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었고 네 눈 앞에서 네 모든 원수들을 끊어버렸으며 지상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위대한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었도다** 10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으리니 그들이 자기의 장소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악의 자손들도 전처럼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11 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 이후처럼 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너를 모든 네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였노라 또 주가 네게 말하노니 **그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이루리라**



12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곧 네 뒤에 올 네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13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15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16 **네 집과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17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또 이 모든 환상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 고하니라

육신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다윗의 씨"요, 주님도 "다윗의 씨"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아브라함의 씨요, 또한 이삭의 씨인 것입니다. 그 씨는 "네 왕국이 네 앞에 영원히 세워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어져왔지만, 그 승계가 끊어졌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씨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왕위의 승계는 끊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오신 왕으로 앉아계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 이 땅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계속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메시아의 모형이었지만 왕권 승계가 왜 끊겼겠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으며, 솔로몬은 나중에 타락하여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인 것도 왕권이 끊어진 이유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였으나 이제 다시 살아날 거다"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오신 것과,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왕위가 끊긴 외형상의 이스라엘만이 보일 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왕"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류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는 겉으로만 끊어진 것처럼 보일 뿐, 아주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왕,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겠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생명"이신 분이 살아나는 것이지, 죄악 가운데 있는 지금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저주로 죽어버리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 영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을 때 당연히 죽었다가도 살아나지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 왜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들은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이 '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 '누가 그렇다고 말한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닌 '사람의 말, 교회에서 들은 얘기,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듣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은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몰라서 느낌만을 찾으며 믿지 않는 자에게 무엇을 믿을지 가르치라 ◀**

베뢰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 없나 찾아보고 믿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성경에 없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대적해야 하는 것』** 입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현실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요. 사람 따라가다가 조금만 시험이 들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사람, 목사를 따라가지 말고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은 주님을 안 만나고 목사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엔 진짜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목사님은 처음 봤습니다!"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육 개월 견디다가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목사를 만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진짜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해서 "할렐루야! 그럼 됐다!"고 했는데,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쫓아 모이는 교회의 목사는 연예인이 되어야 하지요. 예배자가 아닌 예배 기술자입니다. 어떤 데는 목사가 얘기할 때 강단 뒤에서 멋이 있으라고 은가루를 뿌리는 데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멋있게 꾸미고 연출을 잘 해도 주님을 못 만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부흥사가 그 교회 목사에게 "당신, 이 교회 장식 다 떼어내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난다."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미국 사람 중에 처음 봤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을 때, 그것을 다른 것으로 메꿔 사람들의 감정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게 하려는 거지요.** 어제 멕시코에 가서 전도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뭘 느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믿게 되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뜨거운 게 오면 그걸 믿으려고 합니다. 뭘 보면 믿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진짜로 말씀을 믿으면 두 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에 주님이 계시니까 말 한 마디도 조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내게 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남의 말 들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온 거지 목사 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습니까? 말씀을 믿을 때 → 나중에 느끼는 거지, 먼저 느끼려고 하면 →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감정으로 끝납니다. 믿음이 아니지요. 오래 못 갑니다. '용두사미'입니다. 용도 마귀고, 뱀도 마귀 아닙니까? 감정적인 것은 용, 뱀, 마귀에게 속아 '용두사미'로 끝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를 들어도 믿음 가운데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먼저 구해야지 감정부터 먼저 느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주님의 막대기와 채찍들로 매를 맞으나 결국에는 회복되는 자가 되라 ◀

주님이 비웃으시며 화를 내는 자는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 계명을 어기는 자"** 입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하심, 그러나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시편 89 편에 잘 나와있습니다.

31 그들이 내 규례들을 어기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32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과를 다스리며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리라 33 그러나 내가 자애를 그들로부터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할 것이요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며 34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35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36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37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주님이 왜 웃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막대기와 채찍들』**로 때리시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즉,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주의 가르치신 기도"**를 아무리 줄줄 외워도 소용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기도만 정말로 확실히 알고 믿고 할 수 있다면 다른 기도는 할 게 별로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주신다"**고 했고, 심지어는, **"그런 것은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이만큼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이상으로 더 주십니다. 넘치게 주신다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일 하다 보면 필요한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까, 자식이 잘 될까 따지지도 말고 뒤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고민하다 보면 주님은 내 고민을 해주시는 거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불량품인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때로 매를 맞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결국에는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늘 회복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 비웃고 조롱하고 화내시는 그리스도의 심판 ① — 통곡의 벽 ◀

끝까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비웃고 조롱을 할 뿐만 아니라 진노까지 하십니다. 언제 주님이 화를 내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고 나왔을 때 주님이 **"이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셨습니다. 그 후 40 년쯤, 주후 70 년경에 하나님이 로마의 디도 장군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성 안에 금이 많다는 소문이 유포되었었는데, 그 금덩어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부숴버린 거지요. 기초석까지 다 깨서 뒤졌습니다. 찾으면 자기 것이 되니까,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부숴버리고 찾아내려고 한 겁니다.



말씀대로 된 것이지요. 그거 다 없어지고 돌벽 딱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화를 내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지고 → 그 때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고 → 온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비웃고 조롱하고 화내시는 그리스도의 심판 ② — 대환란 ◀

진짜 화내실 일만 남아 있지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화를 내시는지 "대환란장"인 다니엘서 12 장을 보겠습니다.

1 그 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 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 때에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이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2 땅의 흙 속에서 잠자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3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별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의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4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가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고난의 때, 환란"**은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말들이 많은데, 교회는 환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들 역시 환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 "대환란"은 크리스찬들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 계획들을 보면 환란을 통과하느냐 마느냐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 쓸데 없는 걱정할 시간에 전도하는 게 낫습니다.

### 당부와 권면 ◀

**1 가장 슬퍼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1 장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메시지를 봉인하라고 했고, 그 봉인은 요한의 때에 열렸습니다. 계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봉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지요. 그걸 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니까 어린양이 책을 받아 떼었습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뗄 수 있지요. 사실, **"가장**

**슬픈 것"**은 내 사업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모르는 것"** 입니다. 그게 가장 슬픈 일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건 관심 없고, 오로지 "내 거, 내 거!"만 찾아 헤멥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이 뜻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이익이 판을 치는 세상, 잘 되기만 하고 돈만 많이 생기면 믿음이 좋은 게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2 역사의 시간표**(62 이레와 7 이레, 그리고 한 이레)**가 어디쯤 와 있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 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그 때』**, **『칠십 이레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이레,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만 남았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간은 70 이레로 정해졌고, **『62 이레와 7 이레 — 토탈 483』**년이 지나면 **"기름부음 받은 자 —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대로 되었지요. 아닥사스 왕 원년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이후 정확하게 483 년 지났을 때』**에 →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니까 이스라엘은 그 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에 맞추어진 겁니다. 그 후 벌써 2000 년도 더 지났는데, 이스라엘이 끊어짐으로 그 시간표는 그 동안 스탑이 된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한 이레, 7 년』**은 언제 시작됩니까? **『환란의 시작이 그 7 년의 시작』**이고, **그 『한 이레』가 끝나면 →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고 → 주님이 재림하셔서 왕권을 회복하고 시간은 영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지요. 성경을 모르면 무지한 자가 되는 겁니다.



**3 브레이킹 뉴스의 메인 앵커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지금 저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브레이킹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 일만큼 브레이킹한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브레이킹 뉴스야 돈 많이 버는 앵커가 범죄자들 잡으러 가는 거, 헬리콥터 뜨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앵커가 되어 돈은 못 벌고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앵커, 그야말로 브레이킹한 뉴스를 전하는 앵커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요. **"이 땅의 잘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님이 웃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이 웃고 조롱하는 일"**이어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사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불쾌해서 화를 또 한 번 내시는 때는 "AD 70 년 성전 함락과, 그 이후 2000 년이 지난 지금, 이제 곧 닥칠 마지막 7 년 동안 **『① 대환란』**으로 연단시키시는 때"입니다. 스가랴 12,13 장에 있는 것처럼 그 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불결한 죄를 씻는 샘이 나와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환란 끝이지요. 그리고 나서 **『② 천년왕국』**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 끝에 마지막 **『③ 백보좌 심판』**이 있고, 땅을 불사릅니다. 베드로후서 3 장에 있는 것처럼 땅을 불살라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땅에 나무를 다 태우고 다시 심는 거와 같습니다. 지구를 소독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새 땅이 되면, 사막에 샘이 나오고 장미가 흐릅니다. 지금은 툰드라 지역처럼 사람이 못 들어가는 늪과 사막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가서 집 짓고 난리가 나겠지요. 이 지상에는 못 쓰는 땅이 더 많습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고 장미가 피고 산들을 바다에 다 빠뜨리고 새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눈이 뜨고 귀가 열리면 정말 오묘하고 신기한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도다 눈이 감겨서 모르겠도다." 한 것처럼, 지금의 성도들 마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모르면 안됩니다. 그 때를 말씀하신 다니엘서 12 장도 **"브레이킹 뉴스"**인 것입니다. 브레이킹 뉴스는 **"대환란"**,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12 장 13 절은 환란이 끝난 후 한 달을 더 기다려 **"1335 일"**이 지나면 **『④ 그 날들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쉬며 땅에 우뚝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까지 갈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환란으로 망가질 데 까지 다 망가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쉬며, 또 우뚝 서겠습니까?

11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이 될 것이니라 12 기다려서 **『일천삼백삼십오 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13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네 길을 가라 이는 네가 쉴 것이요 그 날들의 마지막에 네 땅에 설 것임이라』**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차지하면 희생제, 예배가 폐지되고 **"1290 일"**을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며 세상을 통치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후삼년반 1290 일"** 동안 성전에 앉고 난 후 30 일, 한 달이 더 연장됩니다. 기다려서 1335 일에 이르는 자,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1290 일을 앉고 나서 한 달을 죽지 않고 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멸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환난의 날들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쉬며 어떻게 초토가 된 그 땅에 서게 됩니까? 그 때,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환란 후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한 달을 더 기다리는 시간"**, **"불에 타버린 이 땅이 다시 조성될 때까지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1290 일 후삼년반 환란 끝에 → **『주님이 재림하셔서서 이 땅을 다시 조성』**하십니다. 그걸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이 옷을 갈아입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형편 없는 이 땅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제 멕시코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비가 와서 하늘이 파랗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좋은데 주님이 오염되지 않은 멋진 땅을 새로 조성하시면 저주가 없어진 그 땅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우뚝 서는 것은 또한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주님과 더불어, 그들과 더불어 이 땅을 같이 통치할 우리에게는 이 또한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비록 환란이 와도,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앵커가 되기 바랍니다.



### 4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진정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 편 6 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하신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환란 끝에,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네가 죽인 왕을 내가 세웠도다"** 하시고, **"재림하신 주님"**을 거기에 **"왕"**으로 세우시지요. **"주님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칙령"**입니다. **"칙령"은 아무도 범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범하면 죽는 거지요. 8 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성육신 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도, **"인자의 표적을 너희가 위에서 보리라"** 했습니다. **"인자, son of man,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그 분이**, "인성은 물론 신성을 지니신 영광스런 모습"**으로 천 년을 통치하실 겁니다. 처음 오셨을 때의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모습"**이 아니라,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하얗고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나는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우리들과 함께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진짜 왕이지요. 그런 분, **"내가 너를 나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시온"**에 서게 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지요.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 5 헛된 세상을 비웃고 조롱하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구원"을 더욱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온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 →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 장은 **"주 예수를 네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I am that I am.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the the door of lamb."** 하고 **"I am, I am ...."**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했지요. 2 차원 3 차원이 필요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알아야 시인합니다. 추측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시인하고 회개하고 꼬꾸라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할 때 성령이 확 들어오시면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의 종교인, Sunday christian 들은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되겠지" 하는 착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는

완전히 불량품입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엎드려서 회개할 때 → **"이전 것이 지나가는 그리스도 안의 새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완전 불량품입니다. 사고가 나서 엔진이 떨어져나간 total loss 이지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잘나고 좀 더하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착함이 자기의 의가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나의 의를 따라 내게 행하소서" 하고 자기의 의를 자꾸 말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간음하고 살인한 다음에 "어이구, 이게 아니구나!" 하고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착하게 살았고 빚 떼어먹은 적도 없고 그래도 남보다 나은 거 아니냐?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 6 "양과 염소, 유대와 이방"을 잘 구분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바랍니다

8 절에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을 네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 장에 "온 민족을 다 모으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신다"고 했습니다. 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 받으면서 도망 다니고 그럴 때 "물 한 모금 준 사람과 아닌 사람"이 "양과 염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양"은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지요. "염소"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전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잠깐 세계의 수도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지금의 세계 수도인 워싱턴이 로마로 갈지도 모릅니다. 수백만의 컬럼버스 기사단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짐하지 않고 바티칸의 교황에게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들은 무섭습니다. 지금도 교황이 어디 가면 백만은 우습게 모이지요. 미국의 개신교도들을 다 합해도 캐토릭보다 적습니다. 여기가 기독교 국가인 줄 압니다. 지하에서 프리메이슨들을 통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이방의 하나입니다.



염소들이지요. 주님께서 그 "이방을 땅 끝까지 네 소유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땅끝까지 다니는 게 피곤하지요. 어제도 감기 기운이 있는데 멕시코에 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한 옥타브를 내려서 했는데, 그래도 다녀오니까 힘을 주십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셨지요.

### 7 인류의 마지막은 영화가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실상을 전하기 바랍니다

9 절에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9:11 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욕을 해도 예수님이 가만 놔두고 끝까지 참으시지만 천년왕국 때는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걸리면 철장에 부서집니다. 그렇게 모든 민족을 예수님 한 분이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주님이 내려오실 때 모든 민족이 "UFO 가 내려온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모든 지상 나라들이 그걸 보고 하늘을 공격하며 "우리 땅을 지키자" 하다가 전멸할 것입니다.

옛날에 'indepence day'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문제가 생겼지요. 미국을 향해 달려오는 하늘의 혹성을 핵무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터뜨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 미국은 살았다! Indepence day!" 하는 거지요. "미국이 이겼다, 미국이 최고다!" 하는 거지요. 영화 속의 한 장면 정도겠습니까? 주님이 내려오실 때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UFO 정도로 치부하기 위해 그런 영화를 만들어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 같은 실제 상황이 곧 벌어집니다. 영화처럼 끝은 승리가 아니라 멸망이지요. "아마겟돈"은 지상 모든 민족이 감히 하나님과 싸우려고 모이는 전쟁입니다. 헛된 일이지요. 헛된 일을 꾀하다가 멸망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전하기 바랍니다.

### 8 인간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마지막 때의 역사를 설명하려는 이들을 피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인간들이 그렇게 무지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지를 모릅니다. 우주 정복을 한다 어쩐다 해도 그건 무너지는 '바벨탑'입니다. 정복 못합니다. 그 우주는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든 것입니다. 수많은 하늘의 별들은 무한대지요. 그걸 허벌 망원경 하나로 조금 보고 난리들입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에겐 뭐가 있으면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빅뱅이다 뭐다 하지만, 애초의 그 별은 최초로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가정에서 비롯되지만, 그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현상이 나타나는 그 시초를 말하면 다 무너지는 가설입니다. 별이 폭발해 지구도 달도 생겼다고 가정하지만, 창세기 1 장 1 절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세상의 모든 교육 과학의 가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도 처음에 '아메바'가 뽀글뽀글해서 '짚신 벌레'가 되었다가 뭐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건 아메바가 처음에 있었다는 가정이지, 그 아메바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완전 엉터리입니다.

이 세상 지식이 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지구가 먼저 창조되었냐, 태양이 먼저냐?"고 묻습니다. 태양이 폭발해 떨어져나가서 지구가 되었다고 배우지요. 성경은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는 자기 초이스입니다.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으로 설명이 안되면 못 믿는 세대를 조심하기 바랍니다.

### 9 말씀의 보고인 WGM 웹싸이트를 늘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 절 말씀은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멸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고 시편 2 편이 끝이 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2 편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성경 전체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 "**성경 전체를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쌓인 것이 우리 웹싸이트입니다. 지금까지 17 권이 올라가 있지요. 많이 듣기 바랍니다.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신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구약에 "신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52 회 나오지요. 원어로는, '의지하다/감사하다/버티다'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 장 8 **절에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릎 꿇을 때가 은혜를 받는 때입니다.

부흥사한테 멋진 얘기 듣는 게 은혜가 아니라 집에서라도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입니다" 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전도자로 유명한 찰스 피니 목사님은 교회가 세상 얘기만 하니까, 누가 복음을 말해주니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나머지 산에 올라가서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해서 성경이 깨달아졌고, 내려와서 킹 제임스 성경 한 권 들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쌍욕을 하던 동네 사람들이 집회하는 데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이 교회 문 닫으라고 해라" 하시는 거지요. 교회 문패 떼어내라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또 "뭐 저런 놈이 다 있느냐"고 욕을 하면서 갔지요. 대개 부흥사들이 '복이나 받으라'는 좋은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긴 오늘 문 닫아야 합니다. 여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패 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한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어떻하면 좋습니까? 주님께만 맡깁니다"는 간구를 했지요. 그 다음날, 하나 둘 사람들이 모이더니 다 회개하고 꼬구라졌습니다.

변호사직을 내던져 버린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 동네 술집은 문을 다 닫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요즘은 일요일에 음식점들이 더 잘됩니다. 예배 끝나고 단체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갈 데 안 갈 데 가리지 않고 휩쓸려다니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좋아 보이는데, 저게 좋아 보이는데 ..." 하다가 악한 영에 끌려 다닙니다. 심지어, 신유 치료한다고 여자를 발로 걷어차기도 합니다. 마리오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봤더니 티셔츠를 입은 어떤 남자가 강단에서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치유하겠다'고 해서 발길로 찬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아니다, 아니다. 거기가 아니고 얼굴을 걷어차라" 했다고 여자 얼굴을 구두발로 차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료해줬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유투브라는 게 잘못 된 게 많습니다. 어떤 데는 성령이 임했다면서 웃음 치료한다고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며 웃어댑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기쁨이 아니고 마귀가 장난하는 겁니다. 마리오 목사님 교회도 교인들이 그런 데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교회가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여기 오신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분이 잔 멕캐더 목사님에게 가서 성경을 18 년 동안 배운 전도자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멕시코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겸손과 은혜를 모르고,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같이 몰려 다니고, 부흥회나 신유 집회한다면서 잘못 된 곳을 찾아 다니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요.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야 그 뜻을 이루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주님의 비웃음을 사는 헛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격분하셔도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